

# 세월호 또 다른 피해자 ‘동거차도의 눈물’

### 미역양식장 기름 유출 수십억 피해...도매상 매입 기피 두달 넘도록 보상 진척 없어...“정부가 선보상 해달라” 생계 막막 주민 80명 목포신항서 미역 쌓아놓고 시위

“우리가 국민이다. 세월호 기름피해 정부가 선(先) 보상해달라!”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피해자인 진도 동거차도 주민 80여명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목포시 목포 신항을 찾아 시위를 벌였다. 동거차도 주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수확하고도 지난 3월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세월호 안에 있던 기름이 바다로 밖으로 유출되는 바람에 상품가치를 잃어버린 미역 등을 동거차도에서 직접 가지고 왔다. 이들은 세월호가 거처된 목포 신항 앞에 직

접 수확한 미역 등을 쌓아놓고 시위를 진행했다. 동거차도 주민에 따르면 동거차도에서는 13가구가 미역 양식을 하고 있다. 이번 기름유출로 인해 미역 양식을 하고 있는 어민들은 가구당 평균 1억8000만원의 손해를 보는 등 총 23억원 가량의 피해를 기록했다. 자연산 미역 채취에 종사하는 70여명의 동거차도 주민들도 피해를 봤다. 자연산 미역을 돌 등에서 직접 수확해 분배해 왔지만 자연산 미역이 한참 자리날 시기에 기름

이 유출되는 바람에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7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지난 3월 기름유출로 인해 동거차도에서는 미역 만으로 총 30여억원의 피해가 난 셈이지만 툇 등 다른 해조류까지 포함한다면 이들의 피해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날 시위에 나선 동거차도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하라’고 적힌 빨간 띠를 머리에 동여매고 정부와 해양수산부에 ‘선 보상’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흘러나온 기름 때문에 미역 양식장은 물론 다른 해조류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보상작업에 진척이 없다”고 정부에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미역 양식을 하는 김창훈씨는 “지난해 13~14만원에 거래되던 미역 1톤(미역을 세는 단위로 10kg 상당)이 올해는 7~10만원으로 떨어졌다”며 “동거차도의 기름

피해가 알려지면서 미역 도매상들이 매입을 기피하는 바람에 생계비는 고사하고 인건비도 못 주는 형편”이라고 막막함을 호소했다. 동거차도 주민 이옥영씨는 “정말 답답하다. 기름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수색 과정에서 쓰아올린 조 명탄도 문제가 있다”며 “남성분으로 이뤄진 조명탄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닷속 안에 나란히 누워 숨겨져 있는 것을 A씨의 지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연탄 화덕 2개와 유서가 남아있었고 출입문 틈새는 비닐로 막혀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진도군 동거차도 어민들이 지난 27일 목포 신항에서 “기름 유출로 피해를 본 어업 손실을 정부가 우선 보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미역을 쌓아놓고 시위하는 주민. 시위에 나선 어민 대다수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일손을 놓고 구조작업에 동참했던 사람들이다.



목포신항 취재지원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침몰 원인은 대법원 판결에서 복원성 부족으로 드러났지만 참사 마지막 순간 낱알의 진실을 밝히는 게 진상규명이자 선 조위의 역할이다”며 “조사 범위는 출항에서 침몰까지 특정 기간에 국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교감 휴대전화에 ‘세월호 출항 반대’ 메시지

### 총 87대 수거 15대 복구업체 분석 의뢰...2대 데이터 복원 선체조사위 참사 상황 재구성키로...침몰해역 수중수색 종료

3년간 바닷속에 잠겨있던 휴대전화 2대의 데이터가 복원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의 상황을 알려줄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체조사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세월호에서 수거된 휴대전화는 총 87대다. 선체조사위는 이 가운데 15대의 휴대전화를 복구 업체에 보냈고 최근 단원과 학생과 교사의 휴대전화 2대의 데이터를 복원했다.

선체조사위 제1 소위원회는 지난 26일 목포 신항만 4층 선체조사위 회의장에서 복원 전문업체가 작성한 휴대전화 2대의 데이터를 복원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복원된 휴대폰의 메시지를 통해 단원과 등학교 교감이 사고 전날 세월호 출항을 반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도 나왔다. 복원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에서는 2014년 4월15일 오후 6시42분께 ‘안개로 못 갈

듯’이라는 메시지가 발송됐다. 이어 이날 오후 7시2분께에는 ‘교감은 취소 원하고’라는 메시지도 남겨져 있었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교감인구 단원과 교감은 당시 기상악화로 부두에 대기하던 세월호의 출항을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체조사위는 복원된 메시지가 세월호 출항 과정을 조사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2014년 4월15일 오후 1시 이후부터 작성된 메시지를 분석하기로 했다. 선체조사위는 다수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복원한 뒤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복원된 사진과 영상 등의 공개는 유가족과 협의의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은 26일

목포신항 취재지원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침몰 원인은 대법원 판결에서 복원성 부족으로 드러났지만 참사 마지막 순간 낱알의 진실을 밝히는 게 진상규명이자 선 조위의 역할이다”며 “조사 범위는 출항에서 침몰까지 특정 기간에 국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가 침몰한 맹골수도 해역에 설치된 사각 펜스 내에서 이어진 약 2개월간의 수중 수색 작업을 종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침몰 해역의 수중수색을 통해 단원과 교사 고장석씨의 유골 1점, 유류품 6점을 수습했다. 다만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고장석씨의 유해가 수중수색 중에 발견됨에 따라 애초 계획했던 사각펜스 철거작업은 유보하고 추가적인 수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 주택서 남녀 4명 숨진 채 발견

### 경찰, 경위 조사 나서

광주의 한 주택에서 성인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26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건물 2층에서 A(51)씨 등 남성 2명과 B(39)씨 등 여성 2명이 밀폐된 방 안에 나란히 누워 숨져있는 것을 A씨의 지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연탄 화덕 2개와 유서가 남아있었고 출입문 틈새는 비닐로 막혀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숨진 이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로 모두 연령대가 다르고 가족 관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만 해당 건물에서 살았고, 다른 번시자들은 각각 경기·경북·충북에 주소소를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자살하는 방법’ 등을 검색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 메르스 의심 60대女 음성 판정 귀가

광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자로 격리 조치된 60대 여성이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조치됐다. 28일 광주 한 대학병원 음압 격리 병상으로 이송됐던 A(여·60)씨의 1차 유전자 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감기 증상을 보여 광주 서구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 감염 여부 검사를 권유받았다.

그는 이스라엘, 로마 등을 방문하고 지난 26일 귀국한 뒤 고열 등을 호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의 기초 검사에서 A씨는 독감으로 알려진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고, 28일 새벽 광주 시보건환경연구원 1차 검사 결과도 메르스 음성으로 판정됐다. 보건당국은 A씨가 48시간 내 2차 검사를 받아야 할 증상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격리 조치를 끝내고 귀가시켰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기초의회 의장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 전남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경찰이 전남의 한 기초의회 의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28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6일 전남지역 모 기초의회 의장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A씨가 지난 2015년 10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문사 창간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려고 신문사 창간에 관여하는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군지역 신문 창간과 지원 관련해 A의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있는 지를 확인하려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주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왜 새벽에 내 남친 만나느냐” 지인·남친 폭행한 20대女



“...왜 말도 없이 내 남자친구를 만나느냐”며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지인과 그 남자친구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서행. ○28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A(여·23)씨는 지난 26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북구 읍내동의 한 술집 앞에서 B(여·20)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C(21)씨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 이를 만류하던 남자친구 C씨의 머리채까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는데 경찰은 “셋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자신의 남자친구가 새벽에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 A씨가 같은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남제1지법 e16621@kwangju.co.kr

###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 내부깨끗, 주차장 여유
- 시세 - 1억 2천만원
- 매매 - 1억 5백만원 → 1억원
- 임대 - 보 5백만원에 월 45만원 가능
- 주인직매
- H. 010-8902-7900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돌레길 진행중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 H.010-3605-5000

### 광양, ㄷ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6억 5천만원
- 주인직매
- H.010-3605-5000

### 금호동, 근린상가

-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코너, 130평
- 7층건물중 701호, 7층 전체
- 법인체 인수가능
- 시세및 감정 - 7억
- 급매 - 4억 8천 5백만원 (대출 4억 2천 5백만원 포함)
- 주인직매
- H.010-3605-5000